

“자신의 불성을 믿고 내려놓자”

만가지 꽃이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 대행 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

관음보살님
내 한마음에 계시오니
항상 감사하옵니다.

일체제불 원력이 내 한마음 원력되어
항상 일상생활 결핍 없이
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일체제불 마음이
내 한마음 범이오니
그 만족함 광대무변하도다.

삼심(三心)이
일심(一心)되니
몰락 전부 놓는다면
일심조차 세울 게 없도다.

천지의 근본도
내 한마음에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내 한마음에 근본이라
어찌 모든 세상
두루 살피지를 못하리오.

일체심이 곧 일심이니
찰나찰나 나투며 길을 밝히도다.

본래부터
마음에는 문이 없어
넘어들 것 없으므로
넘어갈 것 또한 없어
한마음이 근본이니
그대로가 생활이며 법이로다.

내 한마음 믿으으며
한마음의 진실한 뜻
따른다면 자유자재하리이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인 고로
내 한마음에 귀의하오니

이 한마음 믿고 믿어 원을 세우오니
일체가 다 이루어지이다.

오로지 내 한마음 믿고 따르면
찰나찰나 나투는
모든 중생 그대로
건지리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인 고로
내 한마음에
귀의하오니

오로지
내 한마음에
모든 원을 세운다면
성불하리다.



대행 스님 ‘주인공 관법’

“자기 자신의 부처가 될 가능성을 믿어 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귀의하십시오. 나는 수십 년 간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 대행 스님 법문 중

대행 스님은 대중에게 오로지 마음공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 ‘주인공’ ‘믿고 맡기다’ ‘관(觀)하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법문을 펼치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다.

스님이 주창한 주인공(主人空) 관법은, 관념으로 궁리하는 이론이 아니라, 수박을 쪼개어 그 자리에서 직접 맛을 봄으로써 수박의 실체를 그대로 믿고 알게 하는 진리의 실천이다. 자신의 참다운 주체인 불성을 믿고 의지해 2500년 전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 증득할 수 있는 마음 도리인 것이다.

이러한 스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좌표를 몰라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이자, 내면의 보배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

대행 스님이 일러준 마음공부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에 관련한 법문을 통해 내 근본 에너지인 불성, 즉 주인공을 찾아가도록 하자. **정리=아나는 기자**

근본 에너지 불성 발현하는 마음공부

주인공 관법은 한마음선원의 대표적 수행법이다. 쉽게 ‘나’로부터 생각해 보면 된다.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가 있어 상대도 있고 세상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울고 웃게 된 것도 그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나의 근본 ‘참나’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러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佛性)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한다. 바로 나를 생성시킨 근본이며 이것은 곧 우주를 생성시킨 근본 에너지를 말한다.

대행 스님은 내 모든 것을 진짜로 하는 그 불성 자리를 일러 주인공이라 이름하고 내 근원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하라고 가르쳤다.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寶庫)인 주인공은 꼭 차 있으면서도 내세울 실체가 없어 주인공(主人空)이라 했다.

“먼저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 합니다. 내가 그냥 나이 지 뉘겠느냐 싶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결합일 뿐인가, 아닙니다. 그러한 나 아닌 진정한 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씩을 띄워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까? 나를 싹틔운 그는 누구입니까? 곧 참나, 주인공입니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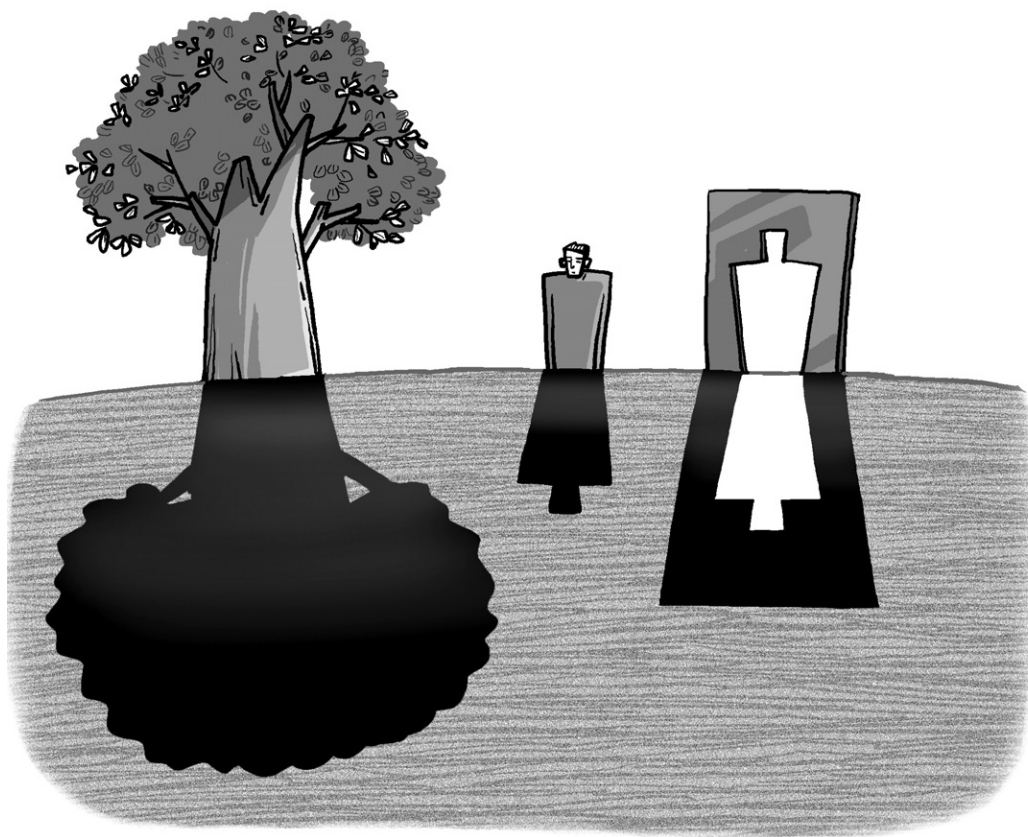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해 내가 열매라면 주인공은 열매를 있게 한 쪽지와 같고, 내가 쪽지라면 주인공은 그 쪽지가 매달린 가지와 같으며, 내가 가지라면 주인공은 그 가지가 돌아 나온 줄기와 같습니다. 내가 줄기라면 주인공은 비유하건대 뿌리와 같으니 뿌리는 나무가 있게 된 근본이라 그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나의 참된 근본입니다. 내 몸, 내 생각은 돌아

주인공 관법은 진리의 실천
‘참나’ = ‘불성’ = ‘주인공’
내려 놓음은 관념을 타파해

났다가 곧 스러지는 가지, 잎과 같으니 뿌리는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썩으면 새로운 가지와 잎을 돋게 하듯이 주인공도 그러합니다.”

그대로 믿고 놓는 것도 관법

나무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어 그 속에서 꽃을 찾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꽃을 피우는 성품은 분명히 그 속에 있다. 그 성품이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놓는 것이 관법이다. 이때 놓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즉, 너 나 높고 낮음 잘났음 못났음 좋고 싫음 등 내 생각으로 지어서 분별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무조건 믿듯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듯이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세요. 믿는다, 맡긴다 하는 생각조차 붙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맡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되면 왜 일이 잘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러나와서 우위의 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자리는 본래 부동이지만 그 같은 나뭇의 묘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그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놓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살다보면 앞뒤 좌우가 모두 꽉 막혀 어떻게 손을 써 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 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생 · 공심 · 공용 등이 깨달음
모든 것 놓는 ‘집착 버림’이
겸손과 하심 자유인 만들어

그런가 하면 더욱 더 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에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직면한 어려움이야말로 주인공이 나를 위해 공부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어려움을 준 쪽에서 결국은 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참된 삶 살 수 있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에 얽매어 쪼뼛매지 말고 ‘주인공! 잘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주인공의 뜻일 뿐이니 모든 것을 주인공 근본에 맡깁니다.’ 하고 관(觀)하는 것이다. 또한 관법은 좋은 일에는 ‘주인공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 좋지 않은 일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당신일 뿐이야.’ 하고 돌려놓는 것이다. 그 두가지를 마음속으로 부지런히 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 본래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폭 쉬어 보십시오.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에서 벗어나 폭 쉬어보세요. 지난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생각에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 버리면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집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일, 괴로운 일이 닦혔다, 혹은 닦쳐올 것이다 했을 때 웃음을 머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러 놓는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놓아라’ 하니까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씀은 일일이 생각을 내지 않고 폭 쉬어 있으면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법에 맞게 됩니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진리입니다.”

자신 돌아보고 낮춰 함께 이익된 삶 살자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며 믿고 맡기다 보면 물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받은 나무가 차츰차츰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나와 주인공이 하나가 돼 그 열매가 만 생명을 먹여 살리고도 되라는 이치를 알게 된다. 온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살아야말로 진리 그대로의 삶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마음이 넓으면 이 세상을 다 안다고 남음이 있지만 좁으면 바늘 끝도 안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요, 제 마음자리이지 세상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제 고집을 앞세워 남을 원만하고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겸손과 하심만이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 넓은 들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없는 들판에 온갖 생물이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넓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이 세상은 그 차원을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다고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낮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자비스럽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살지 말고 전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눈 · 귀 · 코 · 입 따위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혼란이고 번뇌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행하게도 얼굴 전체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움직일 때는 눈은 눈으로 움직이고, 귀 · 코 · 입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마음의 과학,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학
정신계와 물질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둘 아니게 공생하는
마음의 과학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합장 구배

